

‘제델바이스 반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DO YOU SUFFER FROM ‘SEMMELEWEIS REFLEX’?

By Rick Boxx

이그나츠 제델바이스는 19 세기 중반 비엔나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손 씻기를 권장하고 도입했던 헝가리 의사이자 과학자였다. 이 방법은 당시 산모 사망 원인의 18%를 차지했던 ‘산욕열’을 2%까지 떨어뜨렸다. ‘어머니들의 구세주’라고 불렸던 제델바이스는 오늘날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의료방역과 관련 정책의 선구자였다.

Ignaz Semmelweis was a Hungarian physician and scientist who in the mid-19th century implemented hand-washing procedures for doctors at Vienna General Hospital. This practice decreased the incidence of maternal death, then called “childbed fever,” from 18% to 2%. Semmelweis, the “savior of mothers,” was a pioneer in medical antiseptic policy and practices that have become commonplace today.

그러나 당시에는 “의사들의 손이 병균을 옮길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계 전반에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변화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태도와 저항 때문에 의사들은 산모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법을 계속 고수했다. 다행히도 “손 위생의 아버지”의 지혜는 계속 외면당하지는 않았고, 그에 따라 출산 중 사망률도 급격히 감소했다.

At the time, however, many in the medical community were offended to be told a “gentlemen’s” hands could possibly carry disease. Because of this attitude and resistance to change, doctors unanimously continued their deadly procedures. Happily, the wisdom offered by the “father of hand hygiene” was not ignored forever, and death rates during childbirth were reduced dramatically.

제델바이스가 겪었던 거부와 저항은 결코 특이한 것은 아니었다. 역사 속에서 혁명적 발전은 기존의 통념을 역행하는 것이기에 초기에는 항상 반대에 부딪히거나 거부당했다. 이러한 반응은 ‘집단사고’나 ‘확증 편향’이라 불리며 ‘제델바이스 반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Resistance like what Semmelweis received was hardly a unique response. Many of the great advances in history initially were opposed or rejected because they ran counter to conventional wisdom. This behavior, sometimes termed ‘groupthink’ or ‘confirmation bias,’ is known as the Semmelweis Reflex.

비즈니스 시장에서도 이런 모습이 목격된다.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변화를 주도하는 입장일 때는 별로 개의치 않지만, 내가 큰 변화를 따라가야 할 입장일 때는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는 늘 이렇게 해왔어요!” 하고 불평할 수가 있다.

We see this in the marketplace all the time. Maybe you have responded in similar ways yourself. We do not seem to mind change when we initiate it, but when significant change is being imposed on us, we might dig in our heels and complain, “But we have always done it this way!”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휴대전화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낯설다는 이유로 사용을 주저했다. 작가인 내 친구는 데스크톱 컴퓨터 사용을 처음 제안 받았을 때 거부했다. 그는 “내 전자 타자기가 아주 잘 작동되는데 뭐 하러 그걸 사?”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후 컴퓨터를 사용해보고는 곧바로 그 타자기를 치워버렸다.

This happens with new technology. When mobile phones were introduced, many were reluctant to try them not only because of cost but also because they were unfamiliar. A writer friend, when offered his first desktop computer, initially resisted. He thought, “My electronic typewriter works perfectly well.” Once he tried using the computer, however, he quickly asked to have his trusty typewriter taken away.

성경에서도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완악하고 마음이 굳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 그들은 제델바이스 반사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겠지만, 마치 그것을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In the Bible we see many examples of minds set in old ways, resistant to change. Especially with the Pharisees and Sadducees – religious leaders who were rigid and hard-hearted. They might not have heard of the Semmelweis Reflex but behaved as if they had invented it.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사건들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다. 이 ‘율법 전문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예수님을 급진적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 여기고, 자신들의 종교적 관습과 의식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다.

In the gospels of Matthew, Mark, Luke, and John we see numerous incidents where these ‘experts of the Law’ presented strong opposition to the ministry and teachings of Jesus Christ, regarding him as a radical and troublemaker, a threat to the religious practices and rituals they were espousing.

그들은 회개, 용서 자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수많은 비난을 퍼부었다.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마태복음 12:34)이라고 하셨다. 또 다른 때에는 다음과 같이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셨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마태복음 23:33)

When they resisted His teachings of repentance, forgiveness and mercy, they hurled many accusations at Him. In response, Jesus said things like, “You brood of vipers, how can you who are evil say anything good?” (Matthew 12:34). Another time, He rebuked the leaders for their hypocrisy: “You snakes! You brood of vipers! How will you escape being condemned to hell?” (Matthew 23:33).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한 제자들에게는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누가복음 10:23). 물론 이것은 영적 진리를 대할 때 특히 중요한 원리이지만, 비즈니스 시장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 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된다. 신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할 때 업계의 반응만 살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However, Jesus spoke more kindly to His tender-hearted disciples. He said, “Blessed are the eyes that see what you see!” (Luke 10:23). This is especially important when we deal with spiritual truth, but it is equally valid when facing change in the marketplace. When fresh new ideas are being introduced, let us seek to see what the Lord sees, and not just what our industry embraces.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아시고 살피시기에, 우리는 잠언 3:5-6 을 믿고 따를 수가 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Knowing God is aware of circumstances we face we can find assurance in Proverbs 3:5-6, which tells us to,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s straight.”*

묵상과 토론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제델바이스 반사”는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기존의 규범이나 틀을 깬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그와 관련된 지식, 확실한 증거들을 거부하는 심리적 현상으로, 그 결과,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외면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월요만나를 접하기 전에, 제델바이스 반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혹시 직장에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The “Simmelweis Reflex” is defined as “a psychological phenomenon where people reject new evidence or knowledge because it contradicts established norms or beliefs...that leads to dismissal of new, transformative ideas.” Had you heard of this before reading this Monday Manna? Have you ever observed something like this occurring in the workplace?

2. 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 원칙, 규정이 도입될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심지어 위협을 받는다는 생각까지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Why do you think that many people feel uncomfortable or even threatened when new ideas, principles, or practices are introduced?

3. 일상적인 직장생활에 신앙적 믿음을 도입하려고 할 때, 제델바이스 반사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누군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비즈니스 시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How do you think the Simmelweis Reflex might be involved when the concept of integrating spiritual beliefs with everyday workplace practices is introduced? How do you respond when someone says the Bible and faith in Jesus Christ have no relevance for the marketplace?

4. 원치 않는 변화에 맞닥뜨릴 때, 당신은 주로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이 변화와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답해보세요.

When confronting unwanted change, how do you typically respond? Does trust in God and His involvement in every area of life help you in dealing with such challenges? Explain your answer.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구절을 참고하세요.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이사야 26:3, 41:10, 예레미야 29:11; 시편 37:4-5; 마태복음 6:33-34; 빌립보서 2:14-15

Isaiah 26:3, 41:10; Jeremiah 29:11; Psalm 37:4-5; Matthew 6:33-34; Philippians 2:14-15

- **(이사야 26:3)**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 **(예레미야 29:11)** 11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 **(시편 37:4-5)**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 **(마태복음 6:33-34)**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 **(빌립보서 2:14-15)** 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번 주 도전 Challenge for This Week

당신은 현재 직장에서 주도하는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아니면 특정 변화가 유익하다고 판단되어, 그것을 직장에 도입하려고 하는데 반대에 부딪히고 있나요? 그렇다면 좋은 친구나 멘토 혹은 조언자를 찾아 이 문제를 의논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Are you struggling to deal with changes that are being imposed upon you right now in the workplace? Or perhaps you are facing opposition in trying to introduce changes that you believe would be beneficial. If so, find a good friend, mentor, or advisor with whom you can discuss this and pray for you to have God's wisdom in how to respond.

그리고 만약 당신이 현재 힘든 변화를 겪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다른 누군가를 격려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비즈니스 시장에서 수많은 변화를 겪을 때, 중요한 것은 "불편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아니라, "언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And if you are not currently dealing with troublesome changes, perhaps you can find someone to encourage as he or she needs to address such challenges. With the many changes we all experience in the marketplace, the question is not "if" we will have to find ways to cope with uncomfortable changes, but "when."

※출처: CBMC INTERNATIONAL

※번역 및 편저: 서진희 <기독교전문 서적 번역가, 제 21 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번역, 영어프렌드 미국원어민 온라인 어학원 대표>